

# 땅값 지역격차 갈수록 눈덩이... 전남-서울 273배 차

<㎡당>

## 최근 4년 지가 변화 추이

수도권과 지방, 영남·충청과 호남의 부(富)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가(地價)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 및 민간 자본의 투자와 공공·민간개발에 의해 변동하는 각 지역의 지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의한 인구 집중, 기반 시설의 편중도 심각한 수준에 있어, 법정 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 땅 270㎡ 팔아도 서울 1㎡ 못사 =2015년 전남의 1㎡ 평균지가는 8155원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은 223만806원(223만806원)으로, 무려 273배 이상 비싸다. 강원도(6235원)에만 앞설 뿐 경북(8713원)은 물론 전북(1만1413원), 충북(1만3064원), 경남(2만747원)에 크게 못미치는 예수다. 광주(1만5076원)로, 울산(7만2131원), 세종(7만3148원)보다 비싸지만 대구(16만1805원), 대전(16만9511원), 인천(24만75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5년 ㎡당 평균지가는 수도권이 24만3552원, 광역시 15만70원, 도 1만2433원으로, 광주·전남은 모두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가의 격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더 벌어졌다. 4년간 서울은 23만4516원, 경기도는 1만2970원 각각 상승했으나 광주·전남은 6952원, 1250원 각각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북(1808원), 충남(1839원), 충북(1854원), 경북(1856원)의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광주 역시 대전(1만4701원), 울산(1만8593원), 인천(1만9280원)의 3분의 1 수준 정도가 올랐을 뿐이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중정) 개통,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기반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의 변동폭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개발공시지가는 공공·민간개발 시 보상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광주·전남 토지소유주들은 같은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토지소유자보다 부(富)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015년 나주, 영광, 광양 등 10% 이상 지가 상승 =2015년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평균지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대마산업단지가 조성된 영광과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였다. 영광은 2012년 4.46%, 2013년 7.40%, 2014년 4.99%로 평이했지만, 2015년 무려 14.79%가 상승했다. 나주 역시 2012년 3.78%가 올라 전남 평균(4.67%)보다도 낮았지만, 2013년 5.01%, 2014년 8.97% 등 가파르게 올라 2015년에는 14.45%로 정점

서울 ㎡당 23만4516원 올랐을 때 광주 6952, 전남 1250원 상승 나주·영광·광양 10% 이상 올라

## ■ 시도별 지가 상승액(2012~2014년)

시·도	총상승액(억원)	㎡당 평균 지가 상승액(원)
서울	137조5566	23만4516
부산	29조4608	4만683
대구	16조1406	2만1368
인천	28조8818	1만9280
광주	3조5402	6952
대전	6조5414	1만4701
울산	18조7267	1만8593
세종	13조5270	2만9004
경기	135조0759	1만2970
강원	15조6609	903
충북	14조4271	1854
충남	15조0669	1839
전북	13조5001	1808
전남	15조1630	1250
경북	28조9583	1856
경남	43조3625	4379
제주	8조5900	5000

## ■ 22개 시·군 지가 상승액(2012~2015)

시·군	상승액(억원)	시·군	상승액(억원)
목포	3912	장흥	2004
여수	2조8981	강진	1783
순천	1조8090	해남	3097
나주	2조5847	영암	2831
광양	2조5818	무안	5394
담양	4713	함평	1637
곡성	1400	영광	5741
구례	1615	장성	4084
고흥	3494	완도	1756
보성	1820	진도	1122
화순	3945	신안	2545

을 찍었다. 그 뒤는 광양제철이 있는 광양시로, 2015년 10.53%의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반해 목포, 진도, 영암 등은 2015년 상승률이 3% 미만이었다. 특히 목포는 지난 2012년 0.40%, 2013년 0.18%, 2014년 1.06%, 2015년 0.92% 등의 변화 추이를 보여 지역이 '쇠퇴'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가 상승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와 영암도 2015년 각각 2.96% 오르는데 그쳤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여수는 그 해 지가가 9.03% 올라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2013년부터 3년간 4% 내외의 상승률에 정체되고 있었다.

지난해 세계대나무엑스포를 치른 담양은 지가가 7.11% 올라 엑스포 개최 효과를 누렸다.

지난 4년간 22개 시·군 가운데 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여수로, 2조8981억원이 올랐다. /윤현석기자chadol@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 지도부와 더민주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당직자들이 31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민주묘의 문을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더민주 새 지도부 광주 총출동 호남민심잡기 세몰이

### 5·18묘지 참배...김종인 5·18단체 만나 국보위 참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 지도부가 주말과 휴일, 야권의 뒷발인 광주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호남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관련 단체 면담, 지역언론사 기자 간담회,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정치신진 세력과의 면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1일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주) 회담이 보이지 않으니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뭐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해서 당이 분열했다. (더민주) 광주·호남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야 한다"면서 민심 추스리기에 주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활동과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립(가칭)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 일부는 통합을 생각하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대권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는 가변적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후보 간 경쟁, 우열이 드러나면 경쟁·통합이 가능하고 그때 판단할 일이다"라고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위원장은 영인 인사들의 '공천 약속'에 대해 "공천을 약속하고 온 사람들

은 많지 않다"면서 "먼저 당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불공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30일에는 국보위(국기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논란과 관련해 5·18 관련 단체장들과 만찬을 갖고 직접 사과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의 광주 탄압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찬동하지 않는다"면서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국보위에 참여했던 것이 스스로 들어간 것을 결코 아니라 차출되다시피 들어가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국보위에 참여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에는 비대위원, 선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다. 여기에는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

동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이날 5·18 묘지 참배 과정에서는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5·18 민주유공자회 설립추진위 등 일부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추종파에 자리를 잡은 채 "국보위 참여한 것 후회없다"는 사람은 망월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는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 "전두환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와라"고 격한 성토를 쏟아내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추종파 분향을 위해 경찰의 스크림 뒤에 대기하던 중 5·18 단체 관계자 간에 고성과 사대질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해 불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광양속 여사를 예방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의사 있었다"

### 김용갑 새누리 고문 "부가세 관련 해명도 사실과 달라"

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에게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위 구성 당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기초실장이었던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 제정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국보위에 임명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

신이 저자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보위 참여 배경에 대해 국보위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해서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했고, 결국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고, 당시 세금을 10% 더 내야 하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며 "5공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 제4회 빛창공모전

# 시인이 되다

밝은는 밝은광주안과가 제4회 시인이 되다 빛창공모전 불편을 개회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안과 눈요양빌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감성을 등록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 Hello Spring

###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공모 일정** 접수기간 : 2016.01.15(금) ~ 02.11(목)  
발표일 : 2016.02.15(월) 오후 2시

**공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 주제** 자유주제

**접수 방법** 밝은는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시상 내용** 대상(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상(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佳作(16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의** 밝은는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